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논술고사 문제 해설**  
**[사회-오전반]**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 I . 인문사회계열 - 오전반

## 1. <제시문형 문제> : 독서의 특성과 방법

### 1) 논제

제시문(가)를 활용하여 제시문(나)의 밑줄 친 ㉠과 제시문(다)의 밑줄 친 ㉡을 설명하시오. 또한, 제시문(나)와 제시문(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 2) 출제 의도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통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3) 제시문 설명

제시문(가)

- 제목: 독서의 특성
- 내용: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이며, 문제 해결 행위임
- 출처: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42쪽

제시문(나)

- 제목: 홍대용의 「매헌에게 준 글(與梅軒書)」
- 내용: 문장 구절과 주석에 얽매이지 않고 독서를 할 때 옛사람의 뜻을 나의 뜻으로 이해함
- 출처: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8쪽

제시문(다)

- 제목 : R. 샤프티에의 「무질서한 독서」
- 내용 : 재핑(zapping)을 새로운 개인적 시청각 소비와 창조 기술로 설명
- 출처 :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170쪽

#### 4) 평가 준거

(1) 제시문(가)를 활용하여 '㉠의 옛사람'과 '㉡의 텔레비전 시청자(저자)'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였는가?

- 제시문(가)에서 말하는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이자, 문제 해결의 행위임
- ㉠의 '옛사람'은 작가가 쓴 글을 읽는 독자이지만, 독서 과정에서 독자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서한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해석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작가(창작가)가 됨
- '㉡의 텔레비전 시청자(저자)'는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시청자(독자)이지만, 재핑(zapping) 행위를 통해 파편적 텍스트를 조합하면서 시청자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저자가 됨

(2) 제시문(나)와 제시문(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공통점 : 독자나 시청자가 읽거나 재핑을 통해 작가가 됨
- 차이점
  - ① 독서 대상이 다름
    - 제시문(나) : 문자 중심의 책
    - 제시문(다) : 파편화된 영상의 조합
  - ② 독서 방식이 다름
    - 제시문(나) : 순차적으로 읽음
    - 제시문(다) :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채널을 돌리며 시청함

#### 5) 대학 제시 답안

제시문(가)를 보면, 독서는 의미구성의 행위이자 문제 해결의 행위라는 특성을 가진다. 제시문(나)의 ㉠에서 '옛사람'은 작가가 쓴 글을 읽는 독자이지만, 독서 과정에서 독자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서한 텍스트에 대해 새로운 해석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작가를 말하는 것으로, ㉠ '나도 또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는 말은 독자가 독서를 하면서 작가가 됨을 뜻한다. 제시문(다)의 ㉡에서 '텔레비전 시청자'는 텔레비전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독자이다. 이러한 시청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변경하면서(재핑을 하면서),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파편화시켜 나름대로 조합하면서 시청한다. 그러므로 ㉡ '이들 창작품의 유일한 저자는 개개의 텔레비전 시청자'라는 말은 재핑(zapping)을 하는 텔레비전 시청자는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 내는 저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시문(나)와 제시문(다)는 책을 읽는 독자나 재핑을 하는 시청자 모두 읽

거나 보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작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제시문(나)와 제시문(다)는 독서하는 대상이 다르고, 독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제시문(나)는 독서의 대상이 문자가 중심인 책인데 반해, 제시문(다)는 시청(독서)의 대상이 파편화된 영상의 조합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나)는 하나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방식을 가지는 데 반해, 제시문(다)는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수시로 채널을 돌리면서 시청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2. <도표형 문제> : 수도권 공간적 이동

### 1) 논제

다음 표와 그림은 수도권의 공간적 이동에 관한 것들이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에서 인구 유입이 증가한 1970년~1990년 이후 시기를 다시 1기(1991년~2000년)와 2기(2001년~2010년)로 구분하였을 때, 1기와 2기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시오.

### 2)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표와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의 현상을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자료들에서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여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과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3) 표와 그림 설명

<그림1>

- 제목: 수도권 순이동 추이
- 출처: <2011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보도자료(통계청), 4쪽
- 참조: 사회, 교학사, 130쪽('2005년 수도권 순이동' 그림) 관련

<그림2>

- 제목: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요 시군구(1980년, 2000년)
- 출처: 사회 교사용지도서 미래엔, 163쪽

<표1>

- 제목: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상위 시군구(2005년)
-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통근·통학 보도자료>(통계청), 30쪽
- 참조: 사회 교사용지도서, 미래엔, 163쪽(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주요 시군구) 관련 사회, 교학사, 125~126쪽(경기도 거주자의 서울 통근') 관련

<표2>

- 제목: 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 출처: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 특성에 관한 연구>(경기개발원, 2007, 14~16쪽)
- 참조: 사회, 미래엔, 99쪽('일산의 변화 모습' 사진) 관련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141쪽(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관련

<표3>

- 제목: 취업자 수 증감
- 출처: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김영수,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3, 43쪽)
- 참조: 사회, 교학사, 128~129쪽(자발적 이동의 흡입요인) 관련

<표4>

- 제목: 경기도 신도시 주민의 이동 요인
- 출처: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특성에 관한 연구>(경기개발원, 2007, 107쪽)
- 참조: 사회, 미래엔, 112쪽(주거지 선정) 관련

#### 4) 평가 준거

(1) 1기(1991년~2000년)에 나타난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과 원인을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
  - <그림1> 주거지 이동과 관련된 1기의 특징으로, 서울 전출 규모와 경기도 전입 규모가 비슷함. 경기도 순이동 증가가 주로 '서울→경기도' 로의 주거지 이동의 결과임
  - <그림2> 통근·통학과 관련된 1기의 특징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음. 2000년에 경기도 시군구 중 서울 통근·통학 인구가 30% 이상 되는 곳이 1980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원인
  - <표2> 경기도 1기 신도시가 1990년대 초에 건설되어 주택 공급이 확대됨. 신 도시는 거리상 서울에서 10~20k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 통근이 용이함

- <표4> 1기 경기도 신도시 주민의 이동 요인을 보면, 주택과 관련된 요인이 가장 큼

(2) 2기(2001년~2010년)에 나타난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과 원인을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

- <그림1> 주거지 이동과 관련된 2기의 특징으로, 경기도 순이동 증가 규모가 서울 전출 규모보다 큰 것으로 보아 서울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이루어짐

- <표1> 통근·통학과 관련된 2기의 특징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의 비중이 줄어 듦. 즉, 경기도 시군구 중 서울 통근·통학 인구가 30%가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음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원인

- <표2> 2기 신도시 개발이 2000년대 중반경에 시작되어 경기도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됨. 2기 신도시는 대부분 30km 이상에 위치하여 서울 통근이 용이하지 않음

- <표3> 2기의 경우, 1기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일자리가 증가하여 인구를 유인함. 이는 주거지와 직장 간의 일치의 경향을 강화함

- <표4> 경기도 신도시 주민의 이동 요인을 보면, 1기와 비교했을 때 2기에 직장 관련된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요약]

1. 1기(1991년~2000년) 수도권 공간 이동의 현황과 원인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

- 주거지 이동: 서울 전출 규모와 경기도 전입 규모가 비슷함('서울→경기도'로의 주거지 이동)

- 통근·통학 이동: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음

(경기도 시군구 중 서울 통근·통학 인구가 30% 이상 되는 곳이 증가)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원인

- 경기도 1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 확대

- 1기 신도시는 거리상 서울에서 10~20k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 통근이 용이함

- 1기 경기도 신도시 주민의 이동 요인 중 '주택 관련 요인'이 가장 큼

2. 2기(2001년~2010년) 수도권 공간 이동의 현황과 원인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현황

- 주거지 이동: 경기도 순이동 증가 규모가 서울 전출 규모보다 큼

(서울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 통근·통학 이동: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줄어 듦

(경기도 시군구 중 서울 통근·통학 인구가 30%가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음)

• 수도권 공간적 이동의 원인

- 경기도 2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 확대

-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에서 30km 이상에 위치하여 서울 통근이 용이하지 않음

- 2기의 경우, 1기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일자리가 증가하여 인구를 유인함

(주거지와 직장 간의 일치 경향 강화)

- 2기 경기도 신도시 주민의 이동 요인에서 2기에 비교했을 때 '직장 관련 요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5) 대학 제시 답안

<그림1>의 수도권 순이동 추이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모두에서 인구 유입이 증가한 1970년~1990년 시기 이후가 다시 1기와 2기로 구분된다. 1기(1991년~2000년)에는, 서울의 전출 규모와 경기도로의 전입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아울러 <그림2>를 보면, 2000년에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경기도 내 시군구 수가 198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전입 인구가 주로 서울에서부터 이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기의 특징인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주거지 이동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교통망의 확충에 기인한다. <표2>에서 보듯이, 1기 신도시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되었고, <표4>의 1기 신도시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기도 전입 이유로 주택 관련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증명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통망도 확대되어 경기도에 주거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그림2>에서 보듯이 2000년 경기도 시군구 중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곳의 수가 1980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로부터 10~20km 이내 근거리에 위치하여 서울로의 통근이 비교적 용이했다.

한편, 2기(2001년~2010년)에는 서울의 전출 규모보다 경기도로의 전입 규모가 더 크다. 이는 경기도의 인구 증가 원인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을 보면, 2기 서울 통근·통학 인구가 30%를 넘는 경기도 내 시군구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줄어든 것은 2기 신도시 건설의 시작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확대와 함께 경기도 내 취업 기회가 확대되면서 직장과의 일치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표3>은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 1990년~1995년에는 37명이, 2000년~2005년에는 58명이 경기도에서 증가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4>를 보면 2기 신도시 거주민이 신도시로 이주한 이유로 직장과의 관련성이 1기에 비해 높아 직장과의 일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에서 3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기존의 교통망으로는 서울 통근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